

# 류현진, 컨디션 OK 15일 탬파베이전 복귀 기대감 UP

8일 마이너 등판서 4이닝 5실점 2자책점으로 점검 마쳐

마이너리그 등판을 마친 류현진(35·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복귀 예상 날짜가 나왔다. 캐나다 매체 스포츠넷의 아든 즈웰링은 9일(한국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류현진은 8일 재활 등판 경기에서 74개의 공을 던졌다. 컨디션이 괜찮다면 다음 등판은 빅리그 경기가 될 것”이라며 “15일 탬파베이 레이스전에서 복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왼 팔뚝 통증으로 지난달 18일 부상자 명단(IL)에 오른 류현진은 재활 막바지에 다다랐다. 전날에는 토론토 산하 트리플A 팀인 버펄로 바이슨스 소속으로 터렘 볼스(탬파베이 산하)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왔다. 부상 후 첫 실전에서 4이닝 5피안타(1홈런) 6탈삼진 5실점 2자책점을 기록했다. 투구 수 74개 중 스트라

이크는 49개였다. 경기를 마친 뒤 류현진은 “내가 던지고 싶은 모든 구종을 던졌다. 던진 이후 몸 상태도 좋다”고 밝혔다. 최종 점검을 위해 나선 이 경기에서 몸 상태에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조만간 빅리그로 돌아올 예정이다. 토론토는 11~12일 뉴욕 양키스와의 원정 2연전 선발로 기쿠치 유세이, 호세 베리오스를 예고했다. 탬파베이와 3연전의 첫 날인 14일에는 케빈 가우스먼이 출격할 계획이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15일 선발 마운드에는 류현진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한편, 류현진은 올해 2경기에 나와 7⅓이닝을 소화하며 승패없이 평균자책점 13.50에 그치고 있다. 스키아데일리/뉴시스



## 군 면제, 손흥민은 되고 BTS는 왜 안될까

PD수첩, 'BTS와 병역' 편 왜 대중가수만 차별하나 병역법 개정 과정도 점검

‘PD수첩’이 ‘BTS와 병역’ 편을 통해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를 취재한다. 10일 오후 10시30분에 방송하는 MBC TV 시사교양물 ‘PD수첩’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입대 여부를 중심으로 병역법 개정 과정을 짚어 본다. 방탄소년단은 6곡이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하고 그래미상 후보에 오르며 K팝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 개정이 6월까지 끝나지 않으면 팀 만행 진을 시작으로 멤버들이 줄줄이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과 문화계 인사들은 계속해서 현행 병역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바이올린·피아노 등 음악 콩쿠르와 관소리, 무용대회에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은 세계 1등을 해도 받을 수 없다는 것. 스포츠와 순수 예술만 병역특례 대상이 되는 것은 대중문화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한편으로는 BTS나 예술·체육인들의 활

동이 결국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병역특례를 주는 것이 사회적 공정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김용걸 한예종 교수는 “공교롭게도 무용수가 가장 기량이 올라가는 절정의 시기가 딱 군대를 가야 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며 군 입대로 인한 경력 단절이 무용인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했다. 국악을 전공한 학생 역시 “관소리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목에 근육이 붙는데 군대 다녀오고 나면 관소리 원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본인 장르의 특수성이 군 복무보다 무조건 우선시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전인범 전 육군 장군은 “지금은 한 사람만 빠져도 ‘아 저 친구는 왜 안 가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전체 집단이 사기가 떨어진다. 공경하지 않다”는 생각을 밝혔다. 어떻게 해야 예술·체육인들의 기량을 보존하면서 ‘공정’의 가치를 지키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BTS의 입대를 둘러싼 논란은 한 대중가수에게 병역특례를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가치를 관통하는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가 됐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예술·체육인들의 대체복무제도의 현주소를 전달할 예정이다.



가수 임영웅이 데뷔 6년 만에 가진 단독 전국투어 콘서트의 첫 대장정을 성료했다. (출처: 불고기뮤직)

## 프로야구 2~7위 2.5게임차 살얼음판 경쟁

3연전 성적따라 순위 이동... KT·KIA 저력 발휘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2 KBO 리그' KT위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6대 0으로 승리한 KT 선수들이 자축하고 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의 프로야구 순위 싸움이 계속된다. 3연전 시리즈 한 번이 끝날 때마다 순위가 요동친다. 9일 현재 SSG 랜더스(23승1무8패)는 독보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2위 LG 트윈스(18승14패)와는 5.5경기 차가 난다. 눈에 띄는 건 그 ‘뒤’다. 2위부터 7위에 무려 7개 팀이 몰려 있다. 격차도 좁아졌다. 2위 LG와 공동 7위에 자리하고 있는 KT 위즈, KIA 타이거즈(이상 15승16패)는 2.5경기 차로 바짝 붙어 있다.

흐름을 잘 타면 곧바로 상위권 도약이 가능하지만, 하락세를 타면 5강 밖으로 밀려나기 십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10일부터 12일까지 광주에서 펼쳐지는 ‘공동 7위’의 맞대결을 주목할 만하다. KIA는 지난달 27일 KT전부터 3일 키움 히어로즈전까지 6연패에 빠지며 고전했다. 한때 10위 NC 다이노스에 1.5경기 차 앞선 8위로 버티며 최하위 추락을 간신히 막은 KIA는 연패를 끊자마자 연승 모드로 돌아섰다. KT의 저력도 만만치 않다. 개막 전부터 간판 타자 강백호가 이타하는 등 주축 선

수가 연이어 빠져나가며 하위권으로 밀려났지만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을 발휘, 최근 10경기에서 6승4패를 거두며 순위 싸움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좋은 분위기를 누가 계속 이어가느냐에 따라 이번 주중 중위권 진입의 희비도 나눌 수 있다. 3위 두산 베어스와 5위 키움 히어로즈가 맞붙는 주중 고척 경기도 뜨거운 전망이다. 순위로는 2게임 차이가 나지만, 경기 차는 0.5에 불과하다. 올 시즌 두산은 키움에 1승2패를 기록하고 있다. 주말에도 뜨거운 순위 다툼은 계속된다. 지난 주말 롯데 자이언츠와 3연전을 싸웠던 6위 삼성 라이온즈는 13일부터 홈에서 두산과 3연전을 소화한다.

## 임영웅 콘서트... 전 세대가 즐기는 축제의 장

사흘 공연에 2만3000명 운집

가수 임영웅이 데뷔 6년 만에 가진 단독 전국투어 콘서트의 첫 대장정을 성료했다. 9일 소속사 불고기뮤직에 따르면 6~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임영웅의 전국투어 콘서트 ‘아이인 히어로’ 사흘 공연에 총 2만3000명이 운집했다. 임영웅은 대회 약 150분 동안 진행된 이번 콘서트를 최근 발매한 정규 1집 ‘아이인 히어로’ 위주로 꾸렸다. 특히 어버이날인 8일 어버이날 공연에선 임영웅이 관객들을

향한 큰절로 흥겨운 분위기를 이어갔다. 불고기뮤직은 “이번 콘서트는 임영웅과 팬덤 ‘영웅시대’가 함께 만든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이자,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었다”면서 “공연을 보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절버스가 출동했고, 공식 굿즈를 사기 위한 질서 정연한 대기 줄도 끝없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임영웅은 20~22일 창원으로 콘서트를 이어간다. 정규 1집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로 음원사이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딜)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